

4월19일(월)/사도행전18:5~11

제목: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실라와 디모테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하고 나서부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순탄치는 않았다(5~6절). 바울의 전도가 본격화되자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의 방해가 시작되었고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 전도를 포기하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이방인 전도에만 전념하게 되었다(7~8절). 그러던 어느날 밤에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9~10절)는 음성이 들렸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큰 두려움과 위기를 가졌다는 뜻이다. 여전히 자기를 배척하는 무리들과, 이 도시의 음란과 부패상을 보고 이곳에서 가치있는 일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는 고린도에서 거의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말씀을 통해 고린도의 이면에는 전도하면 건질 사람이 많다는 확신으로 무려 1년 6개월을 일하였다(11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말은 당시 바울에게 가장 적절한 말이었다. 하나님은 낙심한 우리에게도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단어와 말을 하심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신다.

4월20일(화)/사도행전18:12~17

제목: 내가 기독교의 증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하였다(12절). 그들은 로마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 종교를 바울이 전한다고 고소하였다(13절). 여기서 ‘율법’ (13절)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로마법을 가리킨다. 그러나 갈리오 오는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과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들의 목적에 이용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며 고소를 기각시켜버렸다(15절). 그리고 그는 자신들의 고소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곳에 남아 웅성거렸던 유대인들을 법정 바깥으로 몰아내었다(16절). 그리고 그는 이 일에 다시는 상관하지 않았다. (17절) 이것은 갈리오가 이 사건에 무관심하였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타인의 영향을 받아 판결 내리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는 바울의 삶과 언행이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에 대한 결정적인 증명은 항상 기독교인 자체이다. 기독교가 참 진리로 세상에 공표되고 인식 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인 자체이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을 세상에 공표하고 있는가?

4월21일(수)/사도행전18:18~23

제목: 세상 풍속을 따르는 바울

바울은 고린도를 출발하여 겐그레아에서 이발을 하고 에베소에 들렀다. 바울은 에베소까지의 여행에 믿음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동행하였다(18절).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19절). 그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기도하기 위해 회당을 찾았다가 거기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바울을 에베소에 더 체류하면서 사역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아쉬움을 남긴 채 에베소를 떠났다(20절). 그는 가이사랴 항구에 잠시 머문 뒤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22절). 이렇게 해서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로 향하며 제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다(23절).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나실인 서원에 따르는 행동이었다(민 6:18~20절) 바울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유대의 율법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관습을 버리지도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풍속을 파기해서는 안된다. 기독교가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이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존중해야 기독교는 그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4월22일(목)/사도행전18:24~28

제목: 단점을 보완해서 쓰시는 하나님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었다. 그는 학식이 많고 달변가였으며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24절) 그는 성경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그는 또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25절).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는 세례요한으로부터 예수에 관한 가르침은 받았고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았다. 그러나 더 깊은 한 가지 사실은 몰랐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였다. 그는 십자가를 모르고 결함을 가진 사역자였다.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금방 그의 결함을 발견하였다. 아굴라 부부는 이런 아볼로에게 자세히 주의 도를 가르쳤다(26절). 그는 아굴라 부부로부터 더 깊은 예수에 관한 가르침을 받은 후에 더욱 힘있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26절).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고전3:6)고 할 만큼 그는 훗날에 고린도 교회의 강력한 리더가 되었다. 하나님은 아볼로의 장점은 발전시키고 그의 결점 하나는 보완하신 후 그를 유용하게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의 단점을 보완하여 쓰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맡은 자는 자신이 무능하다며 함부로 스스로 그 일에서 손을 떼서는 안된다.

4월23일(금)/사도행전 19:1~7

제목: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다(1절).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2절)고 질문을 하였다. 이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2절)고 대답했다. 그들은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된 사람이다. 그리고 아볼로는 세례요한의 제자였다. 세례요한은 평상시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늘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물로 베푸는 한계를 지닌 것이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주는 것이라고 했다(마 3:11). 세례요한은 세례를 가르쳤지만 예수에 의해 더 완전한 세례가 있을 것임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아볼로의 제자들의 대답은 성령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는지에 대하여 알지 몰랐다는 뜻이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요한이 전한 예수에 대하여 다시 상기시켜주고 안수하자 그들은 비로소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4~6절). 우리도 혹시 교회에서 베푸는 물세례를 받고 그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세례 교인이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상태에 있지 않은가? 물세례에서 더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